

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1>

A 은행은 고객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가공하여 자산 관리 데이터 서비스인 연령별·직업군별 등 고객 맞춤형 금융 상품 추천 서비스를 제공했다. 갑은 본인의 데이터 제공에 동의하여 A 은행으로부터 소정의 포인트를 받았다. 데이터 이동권이 법제화된 이후 갑은 B 은행 체크 카드를 발급받은 뒤, A 은행에 ‘계좌 자동 이체 항목’, ‘체크 카드 사용 내역’, ‘연령별 맞춤형 금융 상품 추천 서비스 내역’을 B 은행으로 이동할 것을 요청했다.

- ① 갑이 본인의 데이터를 이동 요청하면 A 은행은 갑의 ‘체크 카드 사용 내역’을 B 은행으로 전송해야 한다.
- ② A 은행에 대한 갑의 데이터 이동 요청은 정보 주체의 자율적 관리이므로 강화된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의 행사이다.
- ③ 데이터의 소유권 주체가 정보 주체라고 본다면, 갑이 A 은행으로부터 받은 포인트는 본인의 데이터 제공에 대한 대가이다.
- ④ 갑이 본인의 데이터를 보유한 A 은행을 상대로 요청한 ‘연령별 맞춤형 금융 상품 추천 서비스 내역’은 데이터 이동권 행사의 대상이다.
- ⑤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 이전에도 갑이 A 은행에서 B 은행으로 이동을 요청한 정보 중에서 ‘계좌 자동 이체 항목’은 이동이 가능했다.

7. 문맥상 ㉠, ㉡와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

- | | |
|------------|----------|
| ① 용이(容易)해져 | 근거(根據)하여 |
| ② 유력(有力)해져 | 근거(根據)하여 |
| ③ 용이(容易)해져 | 의탁(依託)하여 |
| ④ 원활(圓滑)해져 | 의탁(依託)하여 |
| ⑤ 유력(有力)해져 | 기초(基礎)하여 |

여기서 부터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심근경색은 심장근육 일부가 산소와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 괴사하는 현상으로, 이때 손상된 심장조직은 기능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반흔 조직으로 대체된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심장의 전체적 수축력과 이완력에 영향을 미쳐, 시간이 지날수록 심장 형태와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변화하는 심장 리모델링을 유발한다. 리모델링은 좌심실 벽의 비후나 확장, 섬유화 증가, 심방과 심실 간 전기적 부조화 등을 초래하며,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기전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심

근경색 직후 손상 부위에서 유도되는 조직 변화를 조기에 억제하는 기술은 심장질환 치료의 중요한 관건이 된다.

리모델링 억제를 위한 기존 접근은 항섬유화제나 항염증제를 약물로 투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경구 또는 정맥 주사 방식은 약물이 전신으로 퍼져 손상 부위에 도달하는 데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정량적인 조절이 어렵고 부작용 가능성도 존재했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약물 자체보다, 약물을 손상 부위에 정확히 전달하는 기술, 즉 나노전달체 기반 기술이 각광받고 있다. 나노전달체는 수십에서 수백 나노미터 크기의 입자로 구성되며, 여기에 특정한 표적 결합 단백질을 부착하거나, 온도·pH 반응성 물질로 코팅하여 손상 부위에서만 활성화되는 구조로 설계된다. 이를 통해 약물이 정상 조직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국소적·시간적 정밀 조절이 가능해진다.

대표적인 나노전달체는 지질로 구성된 리포솜, 고분자 기반 나노젤, 그리고 무기물 기반의 나노스피어 등이 있다. 리포솜은 인지질 이중층 구조를 이용하여 지용성과 수용성 약물을 모두 담을 수 있으며, 세포막과 유사한 구조로 생체적합성이 높다. 반면, 나노젤은 수분을 머금을 수 있는 격자형 고분자망으로 구성되어 있어, 약물의 방출 속도를 외부 자극에 따라 조절하기에 유리하다. 나노스피어는 산화규소나 금속산화물 같은 무기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표면 개질이 용이하여 다양한 생체 신호에 반응하도록 조절할 수 있다. 이들 각각은 전달 속도, 조직 침투성, 분해 안정성 등의 특성이 달라, 손상 부위의 환경적 조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전달체를 손상 부위에 도달시키는 방식도 다양하다. 예를 들어 심근경색 후 손상된 심장조직에서는 특정 효소가 비정상적으로 과발현되는데, 이 효소를 인식하여 분해되는 효소 민감형 나노코팅을 입힌 전달체는 정상 조직에서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손상 부위에 도달하면 빠르게 붕괴되어 약물을 방출한다. 또는 국소적으로 온도가 상승한 조직에서만 열에 반응하여 구조가 풀리는 열반응성 고분자 나노입자를 사용하기도 한다. 한편, 초음파 자극을 이용하여 전달체 내부 압력을 높여 특정 시점에 약물을 강제로 분출시키는 기술도 실험 중이다.

하지만 나노전달기술에도 한계는 존재한다. 전달체가 혈류를 따라 이동하는 과정에서 면역세포에 포식되거나 간에서 제거되는 경우가 많아, 손상 부위까지 생존하는 전달체의 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달체 표면에 면역회피용 당단백질을 부착하거나, 환자의 체세포에서 유래한 막단백질로 외피를 구성하는 등의 위장 코팅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또한, 약물이 손상 부위에서 일정 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방출되기 위해서는 전달체의 구조적 안정성과 방출 속도 조절 능력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심근조직의 지속적 수축과 이완이라는 기계적 자극 속에서 구조적 파괴를 막는 소재 개발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종합적으로 볼 때, 심근경색 후 심장 리모델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약물 자체의 효과뿐 아니라, 손상 부위에 도달하고, 그곳에서 적절한 시점에 반응하여 필요한 약물 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밀한 전달 시스템이 요구된다. 이러한 시스템은 손상된 심장조직의 미세 환경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반응성을 가진 전달체를 설계하는 융합적 접근을 필요로 하며, 향후 인공심장 재생 기술과도 결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8. 밑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압전체의 제작 방법을 소개하고 제작 시 유의점을 나열하고 있다.
- ② 압전 효과의 개념을 정의하고 압전체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다.
- ③ 압전 효과의 종류를 분류하고 그 분류에 따른 압전체의 구조를 비교하고 있다.
- ④ 압전체의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초정밀 저울의 작동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다.
- ⑤ 압전 효과에 기반한 초정밀 저울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이 원리가 적용된 기체 농도 측정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9. 밑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수정 이외에도 압전 효과를 보이는 재료가 존재한다.
- ② 수정을 절단하고 가공하여 미세 질량 측정에 사용한다.
- ③ 전기 저항 변화를 이용하여 물체의 질량을 측정하는 경우가 있다.
- ④ 같은 방향으로 절단한 수정은 크기가 달라도 고유 주파수가 서로 같다.
- ⑤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 정도를 측정된 질량으로 나누면 질량에 대한 민감도를 구할 수 있다.

1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는 1차 압전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재료가 있다.
- ② ㉠에서는 전압에 의해 압전체의 기계적 변형이 일어난다.
- ③ ㉠에는 전극이 양면에 있는 원판 모양의 수정이 사용된다.
- ④ ㉠에서는 전극에 가하는 전압의 주파수를 수정의 고유 주파수에 맞춘다.
- ⑤ ㉠의 전극에 가해지는 특정 주파수의 전압은 압전체의 고유 주파수 값을 더 크게 만든다.

11.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1>

알코올 감지기 A와 B를 이용하여 어떤 밀폐된 공간에 있는 혼합 기체의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A와 B는 모두 진동자에 알코올이 달라붙을 수 있도록 처리되어 있다. A와 B 모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주파수가 감소하다가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단, 측정하는 동안 밀폐된 공간의 상황은 변동 없음.)

- ① A의 진동자에 있는 압전체의 고유 주파수를 알코올만 있는 기체에서 미리 측정해 놓으면, 혼합 기체에서의 알코올의 농도를 알 수 있겠군.
- ② B에 달라붙은 알코올의 양은 변하지 않고 다른 기체가 함께 달라붙은 후 진동자의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이때 주파수의 값은 알코올만 붙었을 때보다 더 작겠군.
- ③ A와 B에서 알코올이 달라붙도록 진동자를 처리한 것은 알코올이 달라붙음에 따라 진동자가 최대한 큰 폭으로 진동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겠군.
- ④ A가 B에 비해 동일한 양의 알코올이 달라붙은 후에 생기는 주파수 변화 정도가 크다면, A가 B보다 알코올 농도에 대한 민감도가 더 작다고 할 수 있겠군.
- ⑤ B가 A보다 알코올이 일정량까지 달라붙는 시간이 더 짧더라도 알코올이 달라붙은 양이 서로 같다면, A와 B의 반응 시간은 서로 같겠군.

[12~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종교는 인간 문화의 보편적 현상으로서 성스러움과 속됨의 변증법적 관계를 통해 세계 인식의 특수한 방식을 제공한다. 종교 현상학에서는 성스러움을 일상적 경험을 초월하는 절대적 타자성으로, 속됨을 세속적 일상성으로 규정한다. 엘리 아데는 성스러움이 '히에로파니'를 통해 속된 세계에 현현한다고 보았다. 히에로파니란 성스러움이 속된 대상을 통해 스스로를 드러내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때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매개체는 기존의 속성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전혀 다른 초월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일례로 특정 나무가 성스러운 대상으로 인식될 때, 그 나무는 여전히 식물학적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우주의 중심을 상징하는 '세계수'로 전환된다. 성스러움과 속됨은 대립적 관계이지만 동시에 상호 의존적이다. 성스러움은 속됨을 통해서만 인식 가능하며, 속됨은 성스러움에 의해 그 한계가 규정된다. 이러한 변증법적 관계는 종교적 의례와 신화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의례는 성스러움과 속됨의 경계를 넘나드는 매개 행위로서, 종교적 인간이 성스러움을 경험하고 그것을 일상에 통합시키는 방식이다. 오토는 성스러움의 경험을 '누미노제'로 개념화했는데, 이는 공포와 매혹이 혼합된 모순적 감정 상태를 지칭한다. 그는 이러한 감정이 이성적 이해를 초월하는 '전적 타자'에 대한 직관적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이처럼 종교 현상학은 종교적 경험의 고유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인

간 의식의 구조적 특성에 기반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종교적 경험이 주관적 착각이나 미신이 아닌, 인간 실존의 본질적 차원을 드러내는 현상임을 시사한다.

신비주의 전통에서는 성스러움의 경험이 합일 체험으로 극대화된다. 합일 체험은 주체와 객체의 이원적 구분이 무화되는 의식 상태로, 개인이 절대자 또는 궁극적 실재와 하나가 되는 경험을 의미한다. 이는 동서양의 다양한 종교 전통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그 해석과 의미부여는 문화적 맥락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힌두교의 아트바이타 베단타 전통에서는 아트만(개별적 자아)과 브라만(우주적 원리)의 동일성을 깨닫는 것을 해탈의 본질로 본다. 상카라는 이러한 합일 체험이 무지(아비드야)의 제거를 통해 이미 존재하는 실재를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반면 수피즘에서는 합일 체험(파나)을 신과의 사랑을 통한 자아의 소멸 과정으로 이해한다. 알 할라지는 "나는 진리이다"라는 선언을 통해 이러한 합일 상태를 표현했으나, 이는 당시 정통 이슬람에 의해 신성모독으로 간주되어 그의 처형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신비적 체험은 종종 기존 종교 제도의 권위와 긴장 관계를 형성한다. 그리스도교 신비주의에서는 신과의 합일을 영혼의 신성화(테오시스) 과정으로 이해하는데, 이는 인간이 신의 본성에 참여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본다. 에크하르트트는 영혼 깊은 곳에 존재하는 '작은 불꽃'을 통해 신과의 직접적 만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며, 이로 인해 이단 혐의를 받기도 했다. 불교 전통에서는 합일 체험을 자아의 실체성이 없음(무아)을 깨닫는 과정으로 해석한다. 특히 선 불교에서는 돈오(頓悟)를 통해 주체와 객체의 이원성을 초월한 불이(不二)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다양한 신비주의 전통은 표현 방식과 이론적 틀은 다르지만, 일상적 의식 상태를 초월한 합일 체험을 종교적 삶의 궁극적 목표로 설정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합일 체험의 보편성은 종교 다원주의와 배타주의 논쟁에 중요한 철학적 근거를 제공한다. 종교 다원주의는 다양한 종교 전통이 동일한 궁극적 실재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인식하고 표현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종교적 언어와 상징은 문화적으로 조건화된 매개체로서, 그 내용보다 그것이 지향하는 초월적 실재가 중요하다. 힉은 종교적 경험의 대상을 '그 자체로의 실재'(the Real an sich)로 규정하고, 각 종교가 이를 서로 다른 문화적 렌즈를 통해 이해한다고 보았다. 그는 모든 주요 종교의 중심에 자기중심성에서 실재중심성으로의 변환이라는 공통된 구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종교 간 대화는 단순한 관용을 넘어 서로의 영적 지혜를 배우는 상호 풍요로운 과정이 될 수 있다. 반면 종교 배타주의는 진리에 대한 독점적 접근을 주장한다. 배타주의적 관점에서는 특정 종교의 계시나 교리만이 궁극적 실재에 대한 유일한 참된 지식을 제공한다고 본다. 이러한 입장은 자신의 전통에 대한 확신과 헌신을 강화하지만, 다른 종교와의 대화를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 중간 입장으로서는 종교 포

괄주의는 다양한 종교들이 참된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나, 특정 종교가 가장 완전한 진리를 담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라너의 '익명의 그리스도교인' 개념은 이러한 포괄주의적 접근의 예로, 비그리스도교인들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본다.

종교 다원주의와 배타주의의 철학적 쟁점은 진리 개념과 종교 언어의 본질에 관한 근본적 질문으로 이어진다. 종교적 진술이 객관적 실재를 지시하는가, 아니면 주관적 경험이나 문화적 구성물에 불과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종교 간 대화의 가능성과 한계를 결정한다.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 이론은 종교 언어가 특정 삶의 형식 내에서만 의미를 갖는다고 봄으로써, 종교 간 진리 주장의 직접적 비교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는 종교적 진리의 상대성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각 종교의 고유한 언어적 논리와 실천적 맥락을 존중하는 접근이기도 하다.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이런 언어적 상대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너머에 있는 공통된 신비적 경험의 가능성에 주목한다. 스티븐 캐츠는 이를 '보존적 다원주의'로 명명하는데, 이는 각 종교의 구별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들 사이의 대화와 상호 이해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입장이다. 그는 종교적 진리 주장이 문화적으로 매개되지만 동시에 초월적 실재에 대한 유효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달리 종교 배타주의자들은 진리의 본질이 상대적이거나 문화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고 보편적이라고 주장한다. 플랜팅가는 종교적 신념이 기본적인 신념으로서 직접적인 정당화 없이도 합리적일 수 있다는 '기본 신념론'을 통해 이러한 입장을 옹호한다.

성스러움과 속됨의 변증법, 신비주의적 합일 체험, 종교 다원주의와 배타주의의 쟁점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성스러움의 경험이 특정 문화적 맥락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표현되는가는 종교적 진리 주장의 본질과 직결된다. 신비주의 전통에서 나타나는 합일 체험의 유사성은 종교 다원주의의 주요 근거가 되지만, 그 해석과 의미부여의 차이는 각 종교의 고유성을 보여준다. 종교 현상학은 이러한 긴장을 인식론적 차원에서 조명한다. 종교적 경험은 그것이 나타나는 문화적 맥락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인간 의식의 보편적 구조를 반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종교는 단순한 문화적 구성물이나 초자연적 실체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근원적 차원을 드러내는 실존적 응답으로 이해될 수 있다. 종교 간 대화는 이러한 실존적 차원에서의 만남을 통해 가능해진다. 그것은 교리적 합의를 목표로 하기 보다는, 서로의 종교적 경험과 통찰을 나누고 배우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각자의 전통 내에서 성스러움의 경험이 어떻게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스미스는 이러한 상호 이해의 가능성을 '동의 없는 이해'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타자의 종교적 세계관을 온전히 수용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의미 있는 인간 경험으로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종교 다원주의가 신비주의적 합일 체험의 보편성을 강조한다면, 종교 배타주의는 교리적 진리 주장과 계시의 특수성을 중시한다. 이러한 대립은 종교의 본질이 경험적인가 교리적인가, 보편적인가 특수적인가라는 질문으로 환원된다. 그러나 실제 종교 전통에서는 이 두 측면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한다. 교리는 경험을 해석하고 방향을 제시하며, 경험은 교리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따라서 종교 간 대화의 가능성은 이 두 측면의 균형 있는 이해에 달려 있다. 성스러움은 언제나 특정한 문화적 형태로 현현하지만, 그 본질은 모든 형태를 초월한다. 이러한 성스러움의 역설은 종교적 표현의 다양성과 종교적 경험의 보편성 사이의 긴장을 설명한다. 궁극적으로 종교는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초월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의 표현이다. 이러한 초월성에 대한 열망은 문화적 형태와 역사적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그 근원적 지향은 인간 존재의 보편적 특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종교 현상학은 이러한 보편성과 특수성의 변증법적 관계를 통해 종교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는 종교를 단순히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 현상으로 환원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의 인간적 차원을 진지하게 탐구하는 접근법이다. 그것은 성스러움의 경험이 인간의 의미 추구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어떻게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서 표현되고 해석되는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문제 001]

(가)와 (나)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종교 현상학의 관점에서 성스러움과 속됨의 관계를 설명하고, (나)는 신비주의 전통에서 나타나는 합일 체험의 다양한 양상을 비교 분석한다.
- ② (가)는 종교적 경험의 주관적 측면을, (나)는 종교적 진리의 객관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종교 이해의 이중적 구조를 제시한다.
- ③ (가)는 종교적 경험의 보편성을 역사적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나)는 종교 간 대화의 한계를 철학적 논증을 통해 규명한다.
- ④ (가)는 성스러움의 경험이 갖는 모순적 특성을, (나)는 종교적 진리 주장의 상대성과 절대성 사이의 긴장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 ⑤ (가)는 종교 현상의 심리적 기제를 분석적으로 설명하고, (나)는 종교 간 갈등의 역사적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문제 002]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엘리야데에 따르면 '히에로파니'는 성스러움이 속된 대상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현상을 의미한다.
- ② 오토는 성스러움의 경험을 '누미노제'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이를 공포와 매혹이 혼합된 모순적 감정 상태로 보았다.
- ③ 알 할라지의 "나는 진리이다"라는 선언은 수피즘의 합일 체험을 표현한 것으로, 당시 정통 이슬람에 의해 받아들여져 신비주의 전통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 ④ 헉은 '그 자체로의 실재'를 중심으로 종교 다원주의를 설명하면서 각 종교가 서로 다른 문화적 렌즈를 통해 이를 이해한다고 주장했다.
- ⑤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 이론은 종교 언어가 특정 삶의 형식 내에서만 의미를 갖는다고 봄으로써, 종교 간 진리 주장의 직접적 비교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문제 00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뇌 영상 기술을 활용하여 깊은 명상 상태에 있는 수행자들의 뇌 활동을 관찰한 결과, 종교적 배경이 다른 수행자들(티베트 불교 승려, 가톨릭 수녀, 수피 수행자)의 뇌에서 유사한 패턴이 발견되었다. 특히 자아 인식과 관련된 뇌 영역의 활동이 현저히 감소하고, 통합적 의식 경험과 관련된 영역의 활동이 증가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가 서로 다른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유사한 의식 상태를 경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명상 후 참가자들과의 인터뷰에서는 각자가 자신의 종교적 전통에 기반하여 그 경험을 매우 다르게 해석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 ① 이 연구 결과는 종교 배타주의의 관점에서 각 종교의 고유한 교리와 실천이 근본적으로 다른 영적 경험을 유도한다는 주장을 강화한다.
- ② 뇌 활동 패턴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경험의 해석이 다르다는 사실은 종교 언어가 문화적으로 조건화된 매개체라는 종교 현상학적 관점을 뒷받침한다.

- ③ 이 연구는 신비주의 전통의 합일 체험이 신경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물리적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종교적 경험의 초월적 본질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 ④ 참가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서로 다르게 해석한다는 사실은 플랜팅가의 기본 신념론이 각 종교 전통 내에서 특정 교리적 해석의 우위성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⑤ 이 연구는 종교적 경험의 유사성이 인간 의식의 보편적 구조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시사하지만, 동시에 그 경험의 해석과 의미부여는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 004]

다음 명제들에 대한 윗글의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명제>

- ㄱ. 종교적 경험은 문화적 맥락에서 형성되지만, 그 근원적 지향은 인간 존재의 보편적 특성을 반영한다.
- ㄴ. 신비주의적 합일 체험의 유사성은 종교 간 대화의 가능성을 높이지만, 그 해석의 차이는 종교의 고유성을 보존한다.
- ㄷ. 종교적 언어는 특정 삶의 형식 내에서만 의미를 가지므로, 종교 간 진리 주장의 비교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 ㄹ. 종교 현상학은 성스러움의 경험을 인간 실존의 본질적 차원으로 이해함으로써, 종교를 사회적, 심리적 현상으로 환원하는 접근을 거부한다.

- ① 종교 다원주의자는 ㄱ과 ㄴ에 동의하고, 종교 배타주의자는 ㄷ과 ㄹ에 동의할 것이다.
- ② 종교 현상학자는 ㄱ과 ㄹ에 동의하고, 비트겐슈타인은 ㄴ과 ㄷ에 동의할 것이다.
- ③ 엘리아데는 ㄱ과 ㄹ에 동의하고, 히스는 ㄴ에 동의하지만 ㄷ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 ④ 스미스는 ㄱ과 ㄴ에 동의하고, 플랜팅가는 ㄷ에 동의하지만 ㄹ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 ⑤ 오토는 ㄱ과 ㄷ에 동의하고, 스티븐 캐츠는 ㄴ과 ㄹ에 동의할 것이다.

[문제 00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주장을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종교는 근본적으로 문화적 구성물이며, 그것이 지시하는 초월적 실재의 존재 여부는 검증 불가능하다. 따라서 종교적 진리 주장은 인식론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다만 특정 공동체 내에서 삶의 의미를 제공하는 서사로서 기능할 뿐이다. 종교 간 대화는 진리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적 서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종교적 경험은 문화적으로 형성된 기대와 해석 틀에 의해 구성되는 주관적 현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모든 종교는 근본적으로 동등한 가치를 지니며, 어떤 종교도 다른 종교에 대해 우월성을 주장할 수 없다.

- ① 종교 현상학의 관점에서는 종교적 경험이 단순히 문화적으로 구성된 주관적 현상이 아니라, 인간 실존의 본질적 차원을 드러내는 현상이라고 반박할 것이다.
- ② 종교 배타주의자는 종교적 진리 주장이 인식론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견해에 반대하며, 특정 종교의 계시나 교리가 궁극적 실재에 대한 유일한 참된 지식을 제공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 ③ 종교 다원주의자는 모든 종교가 근본적으로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종교가 단순한 문화적 서사에 불과하다는 견해에는 반대하고 그 너머의 공통된 초월적 실재를 인정할 것이다.
- ④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 이론은 종교 언어가 특정 삶의 형식 내에서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종교를 문화적 서사로 보는 관점과 일부 일치하지만, 그것이 종교적 진리 주장의 모든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
- ⑤ 스미스의 '동의 없는 이해' 개념은 종교 간 대화가 서로 다른 문화적 서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그것이 종교적 경험의 보편성과 초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다.

[문제 006]

문맥상 ㉠와 가장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것은?

- ① 그는 자신의 과거 행적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다.
- ② 그녀의 눈빛에서 내면의 결연한 의지가 ㉠드러났다.
- ③ 오랜 연구 끝에 그 물질의 새로운 특성이 ㉠드러났다.
- ④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두 이론의 차이점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 ⑤ 오래된 그림을 복원하자 원래의 색채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요까지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선군이 한림원에 다녀온 후 편지 먼저 하는지라. 노복이 주야로 내려와 상공께 편지를 드리니, 한 장은 부모님께, 한 장은 낭자에게 부친 편지거늘, 부모님께 올린 편지를 상공이 열어 보니,

“문안드립니다. 그사이 부모님께서는 평안하셨나이까?
[A] 저는 부모님 덕분에 무탈하옵니다. 또한 천은을 입어 금번에 장원 급제하여 한림학사로 입조하여 도문*하니, 일자는 금월 망일이오니 잔치는 알아서 준비해 주옵소서.”

하였더라.

낭자에게 온 편지를 부인 정 씨 춘양에게 주며,

“㉠ 이 편지는 네 어미에게 부친 편지라. 네가 잘 간수하라.”

하고 부인 통곡하니 춘양이 그 편지를 받고 울며 동춘을 안고 방에 들어가 어미 시신 흔들고 울며, 편지 열어 닢에 대고 통곡 왈,

“어머님 일어나소. 아버님 편지가 왔나이다. 일어나소. 아버님 장원 급제하여 내려오시나이다.”

하며 편지로 닢을 덮으며,

“동춘은 연일 젓 먹자고 읍니다. 어머님 평시 글을 좋아하시더니 아버님 편지 왔사온데 어찌 반기지 아니하시나이까? 춘양은 글을 몰라 어머님 영전에 읽어 드리지 못하나니 답답하나이다.”

하고 할머니께 빌며,

“할머님께서 어머님 영전에 가 편지를 읽으시면 어머님 영혼이 감동할 듯하나이다.”

하니 정 씨 마지못해 방에 들어가 울면서 편지를 읽는지라.

“낭자께 문안 전하니, 애정 담은 편지 한 장 올리나이다. 우리의 태산 같은 정이 천리에 가림에, 낭자의 얼굴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낭자를 생각하지 않아도 절로 생각이 납니다.

요사이 그대의 그림이 전과 빛이 달라 날로 변하나이다.

무슨 병이 들었는지 몰라 객창 등불 아래에서 수심으로 잠들지 못하니 답답합니다. 낭자의 지극한 정성으로 장원 급제하여 이 몸이 영화롭게 내려가니, 어찌 낭자의 뜻을 맞

[B] 추지 아니하였으리요? 날짜는 금월 모일이니 바라건대 낭자는 천금 같은 옥체를 보존하소서. 내려가 반갑게 만나사이다.”

정 씨 보기를 다함에 더욱 슬픈 마음을 진정치 못하여 통곡하며,

“㉡ 슬프다, 춘양아! 가련타, 동춘아! 너희 어미 잃고 어찌 살라 하는가?”

[중략 줄거리] 선군은 숙영이 시아버지로부터 가문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오해를 받고 자결한 것을 알게 된다. 숙영은 장례 중 부활해 선군과 집에 돌아온다.

상공과 정씨 부인 내달아 낭자를 붙들고 통곡하며,

“낭자는 어디를 갔다 왔느냐?”

하며 참혹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더라. 낭자 상공과 정씨 부인 앞에 가 절하고 사죄되,

“㉢ 첩은 천상의 죄 있으니 천명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너무 한탄치 마옵소서.”

하며,

“㉣ 옥황상제님이 우리를 올라오라 하시니 천명을 거스르지 못하여 올라가옵나이다.”

하니, 상공 부부 더욱 처량한 심사를 측량치 못할러라. 낭자 백학선과 약주 한 병을 드리며,

“㉤ 이 백학선은 몸이 추우면 더운 바람이 나오니 천하 유명한 보배이옵고, 약주는 기운 불편하시거든 드십시오. 백학선과 약주를 몸에 지니시오면 백세 무양하오리다.”

하고,

“부모님 돌아가실 때 연화궁의 세계로 모셔 가오이다. 천상 선관이 연화궁에 자주 다니오니 극락 연화궁으로 오시면 반가이만나 뵈오리다.”

하고 선군더러,

“우리 올라갈 때가 급하였으니, 하직하고 올라가사이다.”

하니 선군이 부모지정을 잊지 못하여 새로이 슬퍼하니, 선군과 낭자 부모를 위로하여 나아가 옆드려 고왈,

“소자 등은 세상 연분이 다하였삽기로 오늘 하직하옵나이다.”

하고 인하여 하직하며,

“부모님 내내 평안하옵소서.”

하고 청사자 한 쌍을 몰아 한림은 동춘을 낭자는 춘양을 안고, 구름에 싸여 올라가는지라.

상공 부부 낭자와 선군이 천궁에 올라간 후로 망연해하며 세간을 다 나누어 주고, 백세를 살다가 한날한시에 별세하더라.

- 작자 미상, 숙영낭자전 -

* 도문 : 과거 급제하고 집에 오던 일.

18. ‘춘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버지를 보고 싶은 심정을 어머니 영전에서 언급한다.
- ② 할머니로부터 아버지의 편지를 받아 어머니에게 읽어 준다.